



전영덕 총동문회장의 신념은 '동문이 잘 돼야 동문회가 활성화되고 모교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진=이수현 기자)

“소통하는 젊은 동문회 만들 것”

이동건 기자 ehdrjs3589@khu.ac.kr
이수현 기자 dltngus011208@khu.ac.kr

#총동문회에는 졸업 이후에도 모교에 대한 애정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총동문회는 모교와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재학생 장학사업 등 각종 모교 지원 사업과 여러 행사를 기획해 왔습니다. 소통하는 ‘젊은 동문회’를 만들고자 한다는 제31대 전영덕(체육학 82) 총동문회장을 만나봤습니다.

Q. 총동문회장 임기 중 중점을 둔 사업은?

A. 그동안 총동문회는 학생들과 교류가 적어 학교에 대한 학생들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없었고, 이와 함께 학생들 또한 동문회에 관심이 없었다고 생각한다. 이를 해결하고자 학생들과 교류하는 공식적인 소통의 장을 구축하여 재학생과 동문 간의 간극을 좁히고 소통하고자 여러 사업을 기획 및 진행하고 있다.

그중 중점을 둔 사업은 미래위원회 조직이다. 재학생과 함께 미래위원회를 조직해 미래위원회 위원인 재학생들이 직접 총동문회 활동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재학생과 총동문회 사이의 소통 네트워크를 구성해 가고 있다.

Q. 총동문회에 가입한 동문의 중도 이탈을 막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A. 총동문회에 가입한 동문의 중도 이탈을 줄이기 위해 동문회비를 낸 동문이 직접 동문 개인의 재능이나 능력을 동문회를 통해 활용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전의 총동문회는 ‘모교가 잘 돼야 동문이 잘 된다’의 개념이었지만 이번 31대 총동문회는 ‘동문이 잘 돼야 동문회가 활성화되고 모교가 발전할 수 있다’의 개념으로 전환해 동문 개개인의 활동 영역을 넓힐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실제로 동문 우대 업체를 모집하고 있을뿐더러 총동문회에서 등반대회, 골프대회 등 각종 행사를 주관해 동문 개개인의 재능을 활용할 수 있게 해 동문이 직접 총동문회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동문회와 모교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 수 있게 유도하고 있다.

Q. 우리학교는 유학생 비율이 매우 높다. 유학생 동문회에 대한 새로운 실행 계획이 있는가?

A. 현재 학교 차원에서도 유학생 동문 관련 데이터가 없어 졸업한 유

학생 동문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총동문회에서는 현재 재학 중인 유학생부터 데이터를 구축해 나가고자 한다. 또한 유학생회와 함께 유학생의 입학부터 졸업 후 동문회 활동까지 일련의 과정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유학생들이 고국에 돌아가더라도 경희대학교 동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애교심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중국 동문회 출범을 비롯해 유학생 동문에 대한 새로운 변화를 꾀하고자 한다.

Q. 총동문회의 운영은 원활한가?

A. 31대 총동문회는 재학생, 학교와 소통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 ‘젊은 동문회’가 되어가고 있다. 이전에는 졸업 후에 동문 관리가 이뤄졌다. 하지만 올해부터 신입생 입학 시 총동문회와 학교가 함께 동문 데이터 관리를 시작하는 것으로 협의했다. 그래서 현재 입학 시 동의를 한 학생에 한해 재학생에게 총동문회 준회원 자격이 부여된다.

그리고 지난해 지역 동문회가 주최하고 총동문회가 주관하는 등산대회를 비롯해 10여 개의 행사를 진

행했다. 팬데믹 이후 활발하게 총동문회 활동이 이뤄지며 홈페이지도 함께 활성화됐고, 정보 전달 방법 또한 유선에서 이메일로 변경되며 총동문회의 소식 확장성도 증대됐다. 이와 같은 긍정적인 총동문회의 변화로, 31대 경희대학교 총동문회가 지난해 ‘행사우수총동문회’로 전국 1위를 달성했다.

또한 4월 18일 20개 대학이 참여하는 전국대학동문발전협의회에서 경희대학교의 발전 현황과 모범 사례를 듣고자 경희대학교 총동문회를 방문할 예정이며, 7월 17일 롯데콘서트홀에서는 조영식 박사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평화음악회’가 있을 예정이다.

Q. 학생들이 총동문회에 가지는 거리감을 해소할 방안은?

A. 학생들과 총동문회 간 거리감을 줄이고자 앞서 말한 미래위원회를 조직했고, 앞으로 총동문회의 다양한 행사에 대해 재학생인 미래위원회 위원들과 논의해 기획 및 진행할 예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신입생 환영 파티를 개최했으며, 오는 5월 20일 재학생 대상 ‘고궁견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Q. 총동문회는 학교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나아가 장기적으로 학교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싶은가?

A. 장기적으로 총동문회가 학교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학교와 동문회가 서로 소통해 학교 발전에 동문이 직접 참여하는 방법을 찾고자 한다.

현재 각 단과대학 동문회장과 학장이 함께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총동문회가 학교와 협의를 통해 필요한 인력, 비용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준비 중이다. 프로그램 중 하나로 공과대학(공대) 동문회장과 공대 학장이 논의를 통해 공대 노후화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과 신축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새로운 발전 계획에 총동문회도 함께할 예정이다.

총동문회가 지난 몇 년간 학교 구성원과 소통보다는 대립의 형태로 운영돼 왔다. 이번 31대 총동문회 출범 후 앞서 말한 여러 사업을 통해 총동문회에 대한 신뢰를 많이 회복했다.

학교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소통창구를 찾고 있으나 아직 원활한 소통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앞으로 원활한 소통을 위해 양 캠퍼스 대외협력처와 총동문회 사무처가 매월 2회 이상 회의를 진행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한다.